

민·관·기업, ‘광주형 ESG 생태계’ 구축 나선다

광주TP 정책포럼 개최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선도지역 만들기 협력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1층 콤드&그라데이션 연회장에서 ‘2025년도 ESG 경영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TP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광주시 ESG 생태계 구축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시의회, 기업, 유관기관,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지역 ESG 확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 류제혁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ESG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기업·기관·시민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유니컴퍼니 양승호 대표는 ‘AI·로봇·센서 기술을 통한 중소기업 ESG 혁신’을,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김동주 팀장은 ‘RE100과 지역 기업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백지은 선임연구원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매칭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에는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기업, 금융, 기관, 시민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광주형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광주가

ESG 경영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기업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ESG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기업·시민·전문가·기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 ESG 생태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나주쌀 나눔 프로젝트’ 추진

농어촌공사, 취약계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서 생산된 쌀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나주쌀 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는 나주에서 생산된 쌀 900포(총 9000kg)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공사는 2019년부터 ‘나주 쌀 나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 규모는 약 51t에 달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우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역농가 영농도움미 지원, 마을회관 시설개선,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시 선수단 해단식

금메달 6개 등 54명 입상…기능경기위, 선수 등 시상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는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광주시 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우수한 성과를 낸 선수단 및 관계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입상선수와 지도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16년만에 전국기능대회를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준 광주숙련기술인연합회와 자원봉사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172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광주시 선수단은 36개 직종

99명이 참가해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우수상 6개, 장려상 23개 등 총 54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이버보안·IT네트워크시스템·모바일앱개발 등 AI·SW 기반 첨단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자동차 정비·통신망분배기술·산업제어등제조·기계 분야의 전통 강세 직종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며 광주의 산업기반과 숙련기술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내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시에서 열린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가래떡데이’ 캠페인 농협 전남본부는 11일 전남도청 1층 로비에서 도민과 도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래떡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차상훈 농협노동조합 전남본부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년 연장 청년 취업난 가중…임금체계 개편을”

한국경총, 혜택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집중 우려

경영계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

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 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방식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과거 정년 60세 의무화 시 법제화된 의무였던 ‘임금체계 개편’은 실제 현장에선 지지부진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제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조금의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산단공 광주본부, 납세자 세법 교실 개최

사례 중심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1일 광주·전남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협업체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 현장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무 실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세무사가 맡아 실제 기업에

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점검하고, 신고 실수 방지와 질세 전략을 익혔다.

홍영기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세무 담당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질세 노하우를 습득해 기업경영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

